센서등이 꺼질 때

전명원

나는 아주 똑똑해졌으면 좋겠어요. 좀 더 똑똑한 사람이 되면 인생에서 실수 같은 건 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내가 뭐라 답했던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지금도 똑똑한데 얼마나 더 똑똑해지려고 그래요, 하며 웃었던가.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던가.
이곳에서 그녀를 마주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일이 없었기에 그저 멍하니 바라봤는데 그 순간 뜬금없이 전에 그녀가 내게 한 말이 생각났다. 그때 나의 답은 끝내 떠올리지 못했다.

…친구예요.
우리 둘 사이의 침묵은 얼마나 되었을까. 나는 굉장히 오래 그녀를 바라본 기분이었는데, 어쩌면 잠깐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녀를 바라볼 때 나의 얼굴은 아마 지금 그녀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놀람과 당황스러움을 숨길 수 없는 얼굴. 그 얼굴로 한참 만에야, 어쩌면 몇 초쯤 후에 그녀가 내게 말했다. 친구…. 라고.

똑똑해지고 싶다던 그녀, 돌아가 누운 내 동생과 친구라고 말하는 그녀. 그녀가 돌아간 뒤 나는 동생의 묘비석 옆의 대리석 꽃병에서 조화를 뽑다 멈칫했다. 지난 여름을 보내고 조금씩 색이 바랜 조화 다발 속에 선명한 튤립이 꽂혀있었다. 방금 돌아간 그녀가 꽂아두고 갔을 것이 분명한 그 조화는 좀 전에 들른 현충원 입구의 매점에서 보지 못한 것이었다. 매점에는 조화가 많았고, 시중보다 쌌지만, 백화점에서 파는 것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었다. 싼 조화일수록 원색이 도드라졌다. 튤립 다발은 언뜻 봐선 생화인가 싶을 만큼 잘 만들어진 것이었다.

*

한동네서 삼십 년을 살았다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놀랐다. 요즘은 토박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이니까 당연하다. 이런 시대에 나는 삼십 년을 한 동네에서만 살며, 동네 안에서만 몇 번 이사했다. 그나마 지금 사는 아파트는 미분양이었던 집을 구해 아버지와 이십 년 동안 살며 한 번도 이사하지 않았다.
우리 아들이 못 찾아오면 어쩌지.
아버지는 아파트로 이사하며 혼잣말을 했다. 낡고 오래된 집은 멀쩡한 곳 보다 손봐야 할 곳이 더 많았는데 마침 건축업자가 집을 사겠다고 했다. 집을 팔고 근처의 아파트로 이사하며 아버지는 여러 번 되돌아보았다.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 이후로도 이십여 년 동안 거의 매일이다시피 산책을 핑계로 그 집, 아니 그 집터를 찾는 것이 일상이었음을.

미용실은 그럭저럭 굴러갔다. 한동네에서 오래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 엄청날 것은 없어도 고정손님은 있는 편이었다. 오래 다닌 단골들은 이사한 이후에도 머리를 하러 오곤 했다. 나이 서른에 처음 연 내 사업장이었다. 손님들은 함께 나이를 먹었다. 젊어서 숱을 치던 그들은 나

이 들며 머리숱이 없어져서 속상해했다. 한참 아이를 키우고 남편이 속 썩이던 그들은 이제 아이들을 출가시키고 늙어가는 남편과 서로를 안쓰럽게 생각하기도 했다.

늙으니까 둘 다 불쌍하지 뭐.

그들이 늙은 남편의 흉을 보다가 이렇게 마무리할 때면 나는 늙으니까 불쌍한 것과 불쌍하게 늙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가끔 궁금했다. 나도 오십줄을 넘기고 있다. 좀 더 나이를 먹으면 어느 쪽이 될까.

길 건너 상가에 인테리어 하잖아요, 왜 그 정육점 나간 자리에 말이에요. 거기 카페가 들어온대요. 원장님하고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사람이 사장인가 본데 공사한다고 드나들길래 물어봤어요.

머리를 하러 오는 손님들은 온 동네 소식을 전해줬다. 새로 생기는 가게 소식뿐 아니라 어디 슈퍼에서 할인 이벤트를 한다는지, 동네 애들이 다니는 학교 소식이라든지 온갖 것을 전했다. 내가 맘먹고 퍼뜨리자고 들면 동네방네 순식간에 퍼져나갈 소식들은 차고 넘쳤지만 늘 듣기만 했다. 어떤 이는 재미없어서 소문 퍼트리기를 그만두었고, 또 어떤 이는 입이 무거운 분이라며 슬쩍 자신의 고민이나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미용실 문을 닫고 새로 오픈한다는 카페 쪽으로 돌아서 걸었다. 집은 가까워서 빠르지 않은 내 걸음으로도 십 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었을 때 켜지는 센서등. 그 환한 불빛의 공간 너머 어둠을 생각하며 가끔은 더 천천히 걸었다. 걷는 시간이 나쁘지 않을때면 집이 좀 더 먼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어둠에 잠긴 빈집에 들어서기 쓸쓸할때면 개를 한 마리 키워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다. 막상 이십 년을 살아 온 집을 떠날 엄두는 나지 않았고, 하루종일 혼자 있을 개를 생각하면 그것도 못 할 짓이다 싶어 매번 마음을 접었다.

카페를 기웃거렸다. 어둠 속에서 냉장고, 커피 머신같은 주방 기구들이 언뜻 보였다. 곧 오픈할 수 있을 만큼 카페는 테이블이며 집기가 대부분 갖추어져 있었다. 한발 물러나 간판을 봤다. 포레스트. 카페의 이름이었다. 잠시 간판을 올려다보다가 빼곡한 아파트들 사이를 천천히 걸어 집으로 돌아왔다.

미용실 손님들은 대부분 새로 문을 연 카페가 공사를 시작하고 문을 열었을 때 얼마 못 가 문을 닫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비슷비슷한 삼십 평대의 아파트 팔백여 채가 한 단지로 두세 단지가 연결된 곳이긴 했지만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 아니었다. 나 역시도 주변에 회사나 상업지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아파트뿐인 그 사이에, 그것도 단지 내 상가에 박혀서 과연 카페가 될까 싶었다.

카페는 오전 여덟 시부터 문을 열었다. 오전 내내 손님은 나 혼자일 때도 있었고 더러 오후에 들르면 빈자리가 없어 돌아서기도 했다. 테이블 다섯 개짜리 작은 카페의 손님은 대부분 나처럼 동네 주민이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모이는 젊은 엄마들은 대부분 교육 이야기에 열을 올렸다. 입시, 내신, 학원 등의 단어가 그들 대화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처음 짐작과 달리 카페는 금방 망할 것 같지는 않아 보였다,

우리 애는 얼마나 먹어대는지 몰라,언니. 피자 라지 한판을 앉은 자리에서 다 먹더라고. 학원 시간 늦었다고 빨리 가라는 데도 그거 한판을 다 먹고야 일어나. 내가 속이 터져서.

얘! 잘 먹는 게 무슨 걱정이니. 우리 딸 봐. 지는 아이돌 할 거라고 병아리 모이 먹듯 찔끔찔끔, 깨작깨작하는데 아주 미칠 지경이야. 그렇다고 아이돌 재능이 있냐면 그것도 아니야. 아무리 요즘 아이돌이 가수냐고 하지만 기본도 안돼. 그냥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니까 하고 싶다는 거지.

젊은 여자들의 대화를 들으며 어림해봤다. 중학생 아이를 두었으면 마흔 초중반 되었으려나. 나의 그 나이를 떠올려봤다. 챙겨 먹일 아이도, 월급 가지고 타박할 남편도 없었다. 열심히 일했고, 당연하게 돈을 벌었다. 부모도 형제도 일찍 곁을 모두 떠났기에 나는 늘 자신을 단도리하며 살았다. 내가 나의 보호자였고, 형제였고, 가족이었으며, 친구였다.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하면 거짓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각하게 외롭지도 않았다. 삶은 그저 심심할 뿐이었다. 학원에 늦는다고 타박을 들으면서도 피자 한 판을 먹어 치우는 아들이 있었더라면, 때마다 월급을 받아오고 성과급을 타오는 남편이 있었더라면 나의 인생은 어땠을까 잠깐 궁금했다.

원장님, 잠깐만요!
빈 테이블이 없어 보여 도로 나오려는데 그녀가 나를 불러세웠다. 그리고 내게 얼른 들려준 것은 쑥 스콘 두 개였다.
반응 좋으면 계속 만들어보려고 해요. 드셔보시고 조언 부탁드려요.
자리가 없어 돌아서는 내게 미안한 얼굴을 하며 그녀가 쥐여준 스콘 두 개를 얼결에 받아들고 길로 나섰다. 매장이 쉬는 월요일이면 주로 낮에 동네를 걸었다. 평일 낮에 한가롭게 길을 걷고 있으면 어쩐지 맘이 무척 여유로워졌다. 삼십 년이나 살아온 동네가 새삼 신기할 것도 낯설 것도 없는데도 일주일에 한 번 걷는 동네 길은 늘 새로웠다. 어쩌면 월요일 그 하루의 산책이 나머지 엿새를 일하게 하는 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저만치 앞서 개를 끌고 걷는 노인은 자주 보는 이였다. 한겨울에도 산책길에 종종 노인을 봤다. 두툼한 파카에 장갑, 목도리까지 한 차림으로 걷는 그는 늘 개를 데리고 있었다. 작은 갈색 푸들이 행여나 추울까 봐 노인은 제 몸처럼 푸들도 단단히 입혀서 데리고 나왔다. 패딩 올인원을 두르고, 신발까지 신겼는데, 개들은 대부분 신발을 신고 잘 못 걷는다는 말과 달리 노인의 개는 신발을 신고도 촐랑대며 잘 걸었다. 사람들이 지나며 신발을 신고, 패딩을 입은 차림으로 걷는 개를 보며 웃었다.
개나리가 피었다가 졌다. 벚꽃이 온 동네에 구름처럼 피어나더니 비바람이 불던 어느 밤 이후 순식간에 사라지고 푸른 잎이 가득했다. 이제 철쭉이 온 화단마다 화사했다. 이런 봄에도 노인은 푸들의 파카를 여전히 입히고 걸었다. 올인원에서 짧은 윗도리만 있는 형태로 바뀌었을 뿐 푸들은 패딩을 입고 신발을 신은 채 경쾌하게 걸었다. 노인도 여전히 두툼한 차림이었다.

젊어서 아버지는 추위라곤 모르던 사람이었다. 한겨울에도 내복이라고는 입어본 일이 없었다. 군대간 동생이 제대하지 못하고 군인으로 죽었을 때 아버지는 지금의 내 나이쯤이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급격히 늙었다. 칠순이 되었을 즈음의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팔순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는데, 실제로도 칠순의 아버지는 마치 팔순노인처럼 기력이 없었다. 그리고 부쩍 추위를 탔다. 겨울을 물론이고 한여름에도 비가 오는 날이거나 저녁이 되면 자꾸 춥다고 했다. 어느 해인가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전화를 해왔다.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 혹시 온도조절기가 고장 난 것이 아닌가 점검하러 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직원은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난방을 많이 하셔서 그랬군요, 하며 온도조절기는 점검하지도 않은 채 돌아갔다.

두툼한 겉옷을 입고, 개한테는 패딩을 입혀 철쭉이 가득 핀 화단 옆을 지나는 노인의 뒤를 천천히 따라 걸었다. 저 노인도 늘 추운 걸까. 이렇게 봄이 곧 여름으로 넘어가는 날에도 저 노인은 늘상 추워서 두꺼운 겉옷을 도무지 벗지 못하겠는 걸까. 나에게도 언젠가…. 저렇게 늘 추운 나이가 오려나.

*

세상에 비밀은 없고, 발 없는 소문은 참 빨리도 퍼져나가는 법이다. 카페주인은 이혼하고 그 공간을 연 것이라고들 했다.

길 건너편에 9단지 사는 친구가 몇 다리 건너 아는 사람이래요. 왜 시내에 영약국 있잖아, 그 집 며느리래요.

영약국이 유명해요?

어머, 자기는 여기 사람 아니라서 잘 모르는구나. 나 어려서부터 영약국 다녔지. 요즘이야 동네마다 약국이 얼마나 흔해. 그래도 예전에는 시내 나가서 장보고 물건 사던 때라 약국도 거기만 갔어요. 지금도 그 집은 동네보다 약이 많이 싸요.

들리는 말로는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했다던데 애 둘 다 시댁에 놓고 나왔다나 봐요.

머리를 하러 오는 여자들은 친구와 함께 오는 일이 많았다. 파마하는 두세 시간 동안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그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떠들었고, 거기에 한둘의 커트 손님이 사이사이 끼었다가 나가면서 소문은 입을 타고, 발을 따라 퍼져나갔다. 나는 그들을 막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께 하지도 않았다.

출근하면서 종종 카페 포레스트에서 카페라테를 한 잔씩 사 들고 가는 날이 많아졌다. 미용실에서도, 집에서도 아메리카노를 마셨다. 나이가 들면서 위가 예민해진 이후에는 카페라테로 바꾸어 보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사마시는 맛을 낼 수 없었다. 대충 원두를 내려 마시면 되는 아메리카노와는 달랐다. 그래서 포레스트에선 늘 카페라테를 주문했다.

오늘은 미용실 쉬는 날이라 느긋하게 나오셨네요.

주문하지 않은 스콘 하나를 서비스로 얹어 그녀가 카페라테와 함께 내밀었다. 미용실은 매주 월요일에 쉬었다. 직원을 두고 휴일 없이 일하던 날도 있었다. 오래된 동네에 택지개발 붐이 일어 아파트가 많아졌지만, 그만큼 미용실도 한 집 건너 하나 생겼다. 결국 직원을 내보내고 혼자 예약제로 일하기 시작했다. 손님을 신경 쓰고, 속 썩이는 직원까지 챙겨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것이 나았다. 아버지가 어느 어두운 새벽에 택시에 치여 돌아가신 두 해 전까지 그랬다.

그 새벽, 길에서 숨이 끊어진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삼우제까지 지내고 열흘 만에 미용실을 다시 열었다. 미용실 문을 하루 닫으면 큰일이 날것 같이 살았지만, 열흘이나 문을 닫았던 미용실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내게 남은 유일한 가족인 아버지가 길에서 숨이 끊어져 더 이상 이 세상에 함께 숨 쉬지 않았지만, 더 이상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어제는 오늘이 되었고, 오늘은 내일이 될 것이다, 내일이 온다면. 사는 일이 그랬다. 이미 오래전에 겪어본 일이다. 고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엄마가, 그리고 삼십여 년 전엔 동생이. 그때마다

아버지와 함께였지만, 이제 나는 완벽하게 혼자 남았다. 나이 쉰을 넘겨 산 나는, 새삼스럽게 사는 일이 무서웠다.
그녀가 내민 스콘을 한입 베어 물고, 따뜻한 카페라테를 마셨다. 여름이 창밖에 있었다.

*

여름 저녁은 더디게 해가 졌다. 영업을 끝내는 것은 오후 여덟 시였는데, 마감 시간이 임박해서 들어온 손님을 야박하게 내보낼 수는 없었으므로 때로는 한 시간씩 늦게 문을 열어두고 있어야 하는 날도 있었다. 커트도 아닌 염색이나 펌을 하겠다며 마감 삼십 분 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아무리 예약제로 운영한다고 해도 모두가 예약하고 오는 것도 아니었다. 어쩔 수 없었다.
늦어진 마감을 하고, 청소까지 끝내고 미용실을 나선 것은 결국 아홉 시가 다 되어서였다. 더디 어둠이 오는 여름이어도 아홉 시는 밤이다. 여름밤의 선선한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걸었다. 마지막 손님은 한두 번 온 적이 있어 안면을 익힌 남자였다. 미안해하면서, 내일 출장인데 염색하는 것을 잊었다고, 예의가 아닌 줄 알지만, 혹시 가능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눈을 감고 있는 그의 얼굴은 꽤 피로해 보였다. 그 피로한 얼굴로 내일은 또 어딘가로 출장을 가야 하는 것이다. 염색을 하고 출장을 간다는 것을 보아 아마도 그는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 것이고, 만나야 하는 그 누군가는 중요한 사람일 것이 분명했다. 이 사람은 내일도, 모레도, 아마 며칠쯤은 피곤한 나날을 보내야겠구나.
사람들은 저마다의 피곤을 안고 걷는다. 나도 여름밤 아파트 사이 한적한 길을 걸었다. 유난히 바쁜 날이었다. 장딴지와 오금이 걸을 때마다 뻐근해져 왔다. 저만치 앞에 한 여자가 걸어가고 있었다. 한 손에 들고 있는 비닐봉지가 묵직해 보였는데 아마도 캔인 듯 여자가 걸을 때마다 비닐봉지 안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여름밤은 어둠이 내렸고, 퇴근 시간이 지나있는 주택가 인도엔 지나는 이도 거의 없었다. 가로등이 오렌지색으로 은은하게 빛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그 빛을 밟으며 앞서 걷던 여자가 무언가에 걸려 넘어진 것은 아주 순식간의 일이었다.

어어엇!
여자의 비명과 함께 앞으로 고꾸라지며 퍽, 소리가 났다. 뒤이어 여자가 들고 있던 비닐봉지 속의 캔들이 떨어지며 바닥에 부딪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렀다. 영화의 슬로우모션처럼 그 모든 것이 펼쳐졌는데 믿을 수 없을 만큼 순서대로 눈앞에 펼쳐졌다.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놀라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는데 넘어진 여자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바닥에 떨어뜨린 비닐봉지를 주워들며 여자를 살폈다. 비닐봉지에 들었던 것은 맥주캔이었는지 두 개는 비닐봉지에 담긴 채였고, 나머지 하나는 떨어진 충격에 터져 거품과 함께 맥주 냄새를 사방에 풍기고 있었다. 여자를 부축하려다 멈칫, 했다. 그녀였다. 카페 포레스트의 주인 여자. 영약국 며느리였다는 그 여자. 남편이 바람나서 부잣집 며느리로 살다 아이들을 다 놓고 이혼했다는 그 여자, 그녀였다.
일어날 수 있겠어요?
부축을 받고 일어서는 듯하던 그녀의 무릎이 다시 푹 꺾였다.
아아아, 죄송해요, 못 일어나겠어요. 다리가 막 후들거려요.

결국 119를 불러 그녀를 근처 대학병원에 응급실로 데리고 갔다. 보호자란에 내 이름을 적고, 다리의 통증으로 끙끙거리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녀를 앉혀두고 대신 수속을 밟았다. 응급실이 대부분 그렇듯 적당한 소란과 적당한 무게로 흥분과 고요가 섞여 있었다. 한 시간 가까이 기다려서 의사를 봤고, 또 삼십 분을 기다려서 엑스레이를 찍었다. 다시 삼십 분을 기다려 만난 의사는 ct를 찍자고 했다. 다시 또 삼십 분 넘게 기다려서야 다행히 골절은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리에 부목을 대고 반깁스를 한 그녀는 진통제를 맞고, 정형외과 진료 예약을 받아들고서 응급실을 나설 수 있었는데 이미 자정이 훌쩍 넘어있었다. 주사 덕인지 진통은 나아졌으나 반깁스 때문에 택시에 타는 것도 힘든 그녀를 겨우 부축했다.

그녀의 집은 내가 사는 동네와 멀지 않았다. 반깁스를 하고 목발까지 짚은 그녀와 들어선 그녀의 집은 카페 포레스트를 닮아 있었다. 거실의 불을 켜자 깔끔하고 군더더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실내가 눈에 들어왔다. 그 흔한 텔레비전도 없었고, 발 받침이 달린 일인용 의자와 작은 테이블 하나가 전부였는데, 그 테이블 위에 액자가 놓여있었다. 개구쟁이 같은 얼굴로 혀를 내밀고 웃고 있는 남매였다. 아마도 그녀가 놓고 나왔을.

죄송해서 어떻게 해요, 원장님.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불편하시지 않으면 주무시고 날 밝으면 가세요.

그녀는 역시 주사를 맞았더니 통증이 가라앉았다며 나에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집에 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허벅지까지 반깁스를 하고는 난생처음 목발을 짚어본다며 목발을 짚고서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녀를 놔두고 가기도 애매했다. 그렇다고 과연 내가 그녀의 집에서 간호를 해줄 정도의 사이인가 생각하니 그것도 마찬가지로 애매했다.

물이랑 전화기 충전 코드랑 약 같은 거 침대 옆에 놔둘게요. 또 필요한 게 있으면 갖다줄 테니까 말해요. 손닿는 데다 갖다주고 좀 있다가 나는 갈게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핸드폰에다가 내 번호 저장해둬요. 혹시라도 급하게 부를 사람이 없으면 전화해도 돼요. 같이 사는 다른 가족 없으니까 부담 갖지 않아도 괜찮아요.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녀의 손을 한번 잡아주고 돌아오니 뒤이어 여명이 돋았다.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나니 지난밤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일어났을까. 목발 짚는 게 오히려 불안해 보이던데 행여 목발 짚고 화장실이라도 가다 다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전화를 해볼까 하다 말았다.

카페 포레스트는 늘 오전 여덟 시에 그녀가 나와 문을 열었다. 그리고 열 시부터 아르바이트생이 나와 함께 일을 했다.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났더니 오히려 눈꺼풀이 빡빡했지만 씻고 출근을 서둘렀다. 포레스트 앞을 지나다 보니 아르바이트생이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카페라테를 주문했다.

사장님이 간밤에 퇴근하다가 넘어져서 좀 다치셨대요. 일찍 나올수 있겠냐고 아침에 문자 주셔서 저도 알았어요. 일단 오늘은 못 나오신다고 하고요, 상황 봐서 목발 짚고 나오신다고 하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묻지도 않은 말을 전하는 아르바이트생 덕에 그녀가 밤새 잘지낸 것을 확인한 셈이 되었다. 카페라테를 받아들고 나와 미용실 문을 열었다. 그녀에게 문자를 보낼까 하다 말았다. 얼굴 익힌 단골손님일 뿐인데 어쩐지 오지랖 넓은 사람처럼 보이는 게 싫었다.

*

삼일을 쉬고 나서 카페 포레스트의 그녀는 목발을 짚고 매장에 출근했다. 카페라테를 사러 카페에 들렀을 때 그녀가 반겼다.

급할 때는 이제 목발 없이 움직이기도 해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녀는 삼 일 내내 하루에 한 번씩, 저녁 여덟 시 반쯤에 문자를 보내왔다. 나는 여덟 시에 미용실 영업을 끝내고 집으로 천천히 걸어가며 그녀의 문자를 읽었다. 불이 꺼진 빈집에 들어섰을 때 현관의 센서 등이 잠깐 환하게 켜지듯, 그녀의 문자는 매일 같은 시간에 내게 도착해 불을 밝혔다.

어제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하루가 지났다고 어느새 목발 쓰는 요령이 조금 붙었어요.

저는 오늘도 잘 지냈어요. 낮에는 도무지 다리가 낫는 것 같지 않은데 신기하게도 자고 일어나면 어제보다 나아진 걸 느껴요.

내일은 출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음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살 걸으면요.

매일 날아온 그녀의 문자에 나는 매번 짧은 답장을 보냈다. 나도 모르게 그녀의 문자보다 몇 배쯤 되는 긴 문자를 썼다가 주책이지 싶어 우르르 지웠다.

목발 사용이 나아졌다니 다행이에요. 그래도 조심해서 다녀요.

자고 일어나면 더 불편한 경우도 있다던데 다행이에요.

무리해서 출근하지 말고 조심해요. 관절은 후유증이 더 오래간다고 해요.

주문한 카페라테와 함께 그녀가 작은 상자를 하나 내밀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눈으로 묻는 내게 그녀는 살짝 볼이 붉어진 채 웃었다.

원장님 아니셨으면 그 밤에 엎어진 채로 쩔쩔맸을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녀는 아침에 스콘과 휘낭시에를 구웠다고, 며칠 동안 아르바이트생이 음료만 팔았기에 출근한 기념으로 넉넉히 만들었으니 함께 맛봐달라고 했다. 상자가 묵직했는데, 아마도 이 상자를 채우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목발을 짚고 분주했겠구나 싶었다.

다리나 낫고 인사해도 되는데 뭘 이런걸…. 지나가다가 마침 봤으니 도와준 것도 당연한데 이런 걸 받아도 될까요, 하며 상자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감사한 맘으로 이 상자를 채웠을 테니 나 역시 감사한 맘으로 이 상자를 받는 것이 예의다 싶었다. 잘 먹을게요, 몸조리 잘하세요, 인사하고 나오는데 등 뒤로 그녀의 웃는 얼굴이 뒤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밤의 사건 이후 그녀와 나의 관계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카페주인과 손님, 카페 사장과 미용실 원장, 동네 이웃 주민.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서로의 자리에서 반 발짝쯤 다가선 관계 같은 것이었다.

저기 새로 생긴 카페 사장 목발 짚고 있더라. 며칠 전에 넘어져서 다쳤다던데.

미용실 손님들이 즈이들끼리 그녀의 이야기를 할 때 모른척했다. 그 밤, 그녀가 들고 있던 봉지 속의 캔맥주들이 인도에 쏟아져 내려 풍기던 술 냄새를 가끔 생각했다. 터지지 않은 두 캔이 든 비닐봉지를 어쨌더라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침 출근길엔 여전히 포레스트에 들러 카페라테를 한 잔씩 사 들고 왔고, 미용실이 쉬는 월

요일엔 오전 느지막이 카페에 들어앉아서 카페라테를 느긋하게 마시고 동네를 걸었다. 일상이 반복되는 사이 그녀는 목발을 놓았고, 반깁스를 풀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 아주 조금은 더 친해졌다.

친구들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평생 온실 속에서, 양지만 걸어가듯 살아갈 사람 같아 보인다고요. 사실 저는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말 같은 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공부는 중간이어서 우등상 같은 건 받은 적 없지만, 개근상은 늘 받는 학생이었죠. 친구를 이끌고 다니는 타입은 아니었지만, 혼자서 다닐 용기도 없는 학생이었어요, 저는. 대학생이 되어서 같은 과 남학생과 첫사랑을 했어요. 착한 친구였죠. 모난 데 없고 밝은 친구였어요. 입학하자마자 커플이 되었고, 2학년 때 그 친구가 군대에 갔어요. 나는 그 친구와만 학교생활을 했으니 다른 친구가 없었어요. 갑자기 혼자 남겨진 것처럼 어쩔 줄 모르는 나날이었죠. 그때 복학생 선배가 다가왔고, 참 적극적인 그 사람과 다시 연애를 시작했어요. 맞아요. 고무신을 바꿔 신은 거죠. 군대 간 친구에게 편지를 썼고, 그 친구는 답장 대신 전화를 했어요. 아무 말 없었는데 전 그 친구란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마도 동전이 다 되었을 거예요. 전화가 끊겼고, 그것으로 그 친구와는 끝이었어요. 복학생 선배와는 졸업하고 바로 결혼했어요. 있는 집 아들이었어요.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하기 싫은 건 해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저와 더 이상 살기 싫어졌다고요.

어느 밤 우연히 퇴근길에 만나 그녀와 함께 걸어 돌아오던 날이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가는 그녀는 그날 처음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그 말끝에 덧붙였다.

저는 아주 똑똑해졌으면 좋겠어요. 좀 더 똑똑한 사람이 되면 인생에서 실수 같은 건 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이혼을 하고 나서 그 친구를 일 년에 한 번쯤은 찾아가요. 제가 찾아가지만, 그 친구가 저를 만나주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그 친구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시절의 저를 보러 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시절은 흘러갔으니 돌아갈 수는 없죠. 그러니 이제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저에게 다짐하며 돌아와요. 친구는 만나지 못한 채로요.

*

장례식장 건물 뒤편이었다. 쪼그리고 앉아 어깨를 떨며 우는 여학생 옆에 착잡한 표정의 여학생 두엇이 더 있었다. 조문실로 돌아오는데 지나치며 학생들이 하는 말이 언뜻 들렸다.

고무신 꺾어 신은 걔잖아, 엄청 울던데….

조문실에 앉아 동생의 영정을 오래 봤을 때 나는 생각했다. 너는 연애를 했었구나. 예쁜 아이였을까. 왜 헤어졌을까. 그래도 너는 연애도, 실연도 다 해보았구나. 앞으로도 여러 번의 연애와 여러 번의 실연도 겪어보았으면 좋았을걸. 무수히 많은 기쁨과 더없는 슬픔도 느끼며 살아봤으면 좋았을걸. 우리가 아주 오래, 앞으로도 많은 날을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걸. 그럴 줄 알고 나는 늘 너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데, 다음이 있을 줄 알았어. 나중이 있을 줄 알았어.

동생의 묘비석 앞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그녀가 놓고 갔을 조화 튤립을 한동안 바라봤다. 친구예요, 라던 그녀의 말도 생각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동생의 장례식장에서 머리를 무릎에 박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던 한 여학생을 생각했다.

등으로 붙는 햇볕이 제법 따가웠다. 여름이 다 지나갔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남은 여름이 있는 것일까. 봄 속에 겨울이 있고, 여름 속에 봄이 있고, 가을 속엔 여름이 남아있다.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어지고 온전한 계절로 존재하는 때가 과연 있을까. 가을이 가을이기만 한 날이, 남은 여름 위에 희미하게 올라오는 가을도 아니고 다가오는 겨울 속에 흐릿하게 남은 가을도 아닌, 가을이 온전히 가을이기만 한 날이 과연 있는 것일까.

다른 해의 기일보다 오래 동생의 묘비석 앞에 머무르다 돌아왔다. 차창 밖의 산엔 단풍이 물들고, 구름 하나 없는 하늘엔 선선한 바람이 지나갔다. 가을이면서 여름 끝자락이었고, 겨울이 저 멀리 있는 날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내린 후여서 언제나처럼 빈집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현관의 센서 등이 불을 밝혀줬다. 현관에 선 채 잠시 있었다. 센서등 불빛 너머의 깊고 무거운 어둠을 생각했다. 잠시 후 센서등이 꺼졌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어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다. 천천히 한 자 한 자 어둠 속에서 버튼을 눌렀다.

그때 말이에요, 넘어지던 밤. 그날 캔맥주 세 개 중의 하나는 터지고, 두 개는 멀쩡했는데 그걸 어쨌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우리 같이 맥주 한잔하지 않을래요?